

## (2)비교

고려대 2번 문제 전반부와 연세대 1번 문제를 위한 단원

### (2)비교

#### I. 발문 분석

#### II. 양자비교

- (1)양자비교의 절대구조
- (2)양자비교의 해결법
- (3)구조 및 해결법 활용 예시

#### III. 삼자비교

- (1)삼자비교의 절대구조
- (2)삼자비교의 해결법
- (3)구조 및 해결법 활용 예시

### 비교 (比較)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과 공통점, 차이점 따위를 밝히는 일.

- 네이버 '국어사전'



## I. 발문 분석

### 비교 (比較)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과 공통점, 차이점 따위를 밝히는 일.

네이버 ‘국어사전’

연고대 논술에 나오는 비교는 공통 주제에 관련된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두개 내지 세개의 제시문을 놓고 그것을 비교하는 문제다.

즉, 쟁점(비교기준)이 무엇인지, 각각의 입장을 결론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써 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한 상반된 논의를 ‘양자 비교’ 형식으로 쓴다면 어떨까? 아마 올바른 비교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주제	쟁점(비교기준)		
갑과 을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정당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갑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라 말한다.		갑의 결론	갑의 입장
석유자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전력난을 피하기 위해 원전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갑의 근거	
을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사회에 불이익이라 말한다.		을의 결론	을의 입장
당장의 전력난을 피할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을의 근거	

우리는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주제’ 라 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정당성을 쟁점, 즉 비교 기준이라 할 것이다.

또한, 갑과 을의 입장 가운데 갑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갑의 ‘결론’ 이라 지칭하고, 그들이 그러한 말을 하고 싶은 이유를 ‘근거’ 라 지칭할 것이다.

고려대의 비교문제는, 이처럼 하나의 쟁점에 서로 상반된 두 가지 결론과 그 근거를 서술하는 양자비교의 형태로 2번 문제의 전반부에 출제된다. 분량은 짧게는 300자 정도에서 길게는 600자 정도를 비교에 할애도록 한다.

한편 연세대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양자비교의 형태로 1번 문제의 전반부에 출제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1번 문제 전체를 할당하여 서로 다른 세 가지 결론과 그 근거를 비교하는 삼자비교가 출제된다. 분량은 양자비교일 경우 약 500자 내외, 삼자비교의 경우 약 1,000자 내외를 할애한다.

이들 비교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 발문으로

- ‘비교하시오’
- ‘관계를 설명하시오’
- ‘차이점을 설명(분석)하시오’
-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시오’
- ‘대비하여 설명하시오’

등이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비교하시오’ 의 동의어이다. 역대 기출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자.

[표 1] 역대 고려대 기출 비교문제

고려대				
학년도	기출	문제번호	특이사항	문제발문
2009	모의	2 번 전반부	양자비교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견해를 <b>비교</b> 하고,
2009	수시	2 번 전반부	양자비교	제시문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나타난 ‘얼룩이’와 ‘초록이’의 견해를 <b>비교</b> 하고,
2009	정시	2 번 전반부	삼자비교	‘공감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나) (다) (라)를 <b>비교</b> 하고,
2010	모의	2 번 전반부	양자비교	(2)와 (3)의 주장을 <b>비교</b> 하고,
2010	수시	2 번 전반부	양자비교	‘운의 사회적 의미’라는 관점에서 (2)와 (3)을 <b>비교</b> 하고,
2011	모의	2 번 전체	양자비교	제시문 (4)의 논지를 밝히고, 제시문 (1)과의 <b>관계를 설명</b> 하시오.
2011	수시 오전	2 번 전체	양자비교	제시문 (1)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b>비교</b> 하시오.
2011	수시 오후	2 번 전체	양자비교	제시문 (3)의 논지를 밝히고, 제시문 (1)과 제시문 (3)을 <b>비교</b> 하시오.
2012	모의	2 번 전반부	양자비교	제시문 (2)와 (3)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2)와 (3)의 관점을 <b>비교</b> 하고,
2012	수시 오전	2 번 전반부	양자비교	제시문 (1)과 (2)의 관점을 <b>비교</b> 하고,
2012	수시 오후	2 번 전체	양자비교	제시문 (1)에 근거하여 제시문 (2)와 (3)을 <b>비교</b> ·분석하시오.

[표 2] 역대 연세대 기출 비교문제

연세대				
학년도	기출	문제번호	특이사항	문제발문
2008	수시	1 번 전체	양자비교	제시문 (가)와 (나)에서 ‘중용’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b>비교</b> 하시오.
2008	정시			비교문제 없음!
2009	모의	1 번 전반부	삼자비교	제시문 (가), (나), (다)의 주장을 <b>비교</b> 하고 제시문 (가)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보시오.
2009	수시	1 번 전체	삼자비교	제시문 (가), (나), (다)는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 관한 것이다. 세 방식의 <b>차이점</b> 을 <b>설명</b> 하시오.
2009	정시	1 번 전체	삼자비교	‘창조’와 ‘파괴’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를 <b>비교</b> 하시오.
2010	모의	1 번 전체	삼자비교	제시문 (가), (나), (다)는 ‘이타적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b>차이점</b> 을 <b>분석</b> 하시오.
2010	수시	1 번 전체	삼자비교	제시문 (가), (나), (다)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b>차이점</b> 을 <b>분석</b> 하시오.
2011	모의	2 번 전반부	양자비교	제시문 (라)에 나타난 염상진의 사고방식과 <b>대비하여</b>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일본과 ‘을’의 사고방식의 공통점을 <b>설명</b> 하고,
2011	수시 인문	1 번 전체	삼자비교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태도를 <b>비교</b> 하시오.
2011	수시 사회	1 번 전체	삼자비교	제시문 <가>, <나>, <다>는 과학적 탐구에 대한 여러 관점을 나타낸다. 이 관점들의 <b>공통점</b> 과 <b>차이점</b> 을 <b>논</b> 하시오.
2012	수시 인문	1 번 전반부	양자비교	제시문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b>비교</b> 하고,
2012	수시 사회	1 번 전체	삼자비교	한 사회에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b>비교</b> 하시오.

## II. 양자 비교

- (1) 양자비교의 절대구조
- (2) 양자비교의 해결법
- (3) 구조 및 해결법 활용 예시

### (1) 양자비교의 절대구조

위에 등장한 발문들에서,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를 A라 하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제시문을 각각 B와 C라 하자.

비교문제가 등장하면, 당신은 답안을 아래의 형식에 맞추어 서술해 주면 된다.

- 주제가 같은 두 제시문의 쟁점, 즉 비교기준은 무엇인가?
- 한 제시문은 어떤 결론이며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 나머지 한 제시문은 어떤 결론이며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제시문 B와 C는 모두 [A]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 [A의 어떠한 점]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B는 [A가 어떻게 귀결된다]는 결론이고, 이것은 [이러하기 때문]이다. 반면 제시문 C는 [A가 어떻게 귀결된다]는 결론이고, 이것은 [이러하기 때문]이다.

우선, 양자비교부터 알아보자. 양자비교의 ‘절대 구조’는 다음과 같다  
양자 비교는 무조건 두 비교 대상이 주제에 대해 정확하게 상충되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답안을 쓸 때 비교대상 각각의 논의가 대구 형식을 이루도록 하자.

[1]	비교기준	제시문 (B), (C)는 A의 <b>어떠한 점</b> 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인다.
[2]	비교기준에 대한 B의 결론과 근거	B는 (A에 대해) C와 반대의 결론이며 이는 X하기 때문이다. (B는 X하기 때문에 (A에 대해) B와 반대의 결론이다.)
[3]	비교기준에 대한 C의 결론과 근거	C는 (A에 대해) B와 반대의 결론이며 이는 Y하기 때문이다. (C는 Y하기 때문에 (A에 대해) B와 반대의 결론이다.)

실제 합격자 답안 두 가지를 보며 이러한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하자.

제시문 (1),(2)는 사회를 발전으로 이끌기 위해 개인의 삶에 간섭하는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보인다. **[비교 기준]**

제시문 (1)은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만 사회가 발전한다고 말한다. **[결론]**

사회 질서와 진보는 개인들의 자발적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 유지되어 왔으며, 간섭은 이를 방해하며 전체주의와 같은 더 큰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반면, 제시문 (2)는 사회 발전을 위해 간섭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결론]**

간섭이 개인의 사적 자유를 침해하는 듯 보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오히려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안전 보장,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근거]**

최홍현/고려대 통계학과

(가)와 (나)는 '낭비'에 대해 상반되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각각 낭비를 내버려 두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교 기준]**

(가)에 따르면 '도락'은 낭비 행위로 이해된다. 하지만 (가)는 그런 도락심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결론]**

(가)에서 도락심이란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경향성이다. 인간은 능동적으로 반드시 효율적인 일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활력을 소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락심의 발현으로 인해 문학, 과학, 철학 등이 발전한다. 이는 낭비를 그대로 두어야만 이러한 긍정적인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근거]**

반면 (나)는 '낭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없앨 것을 주장한다. **[결론]**

(나)는 벽돌쌓기에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한 길브레스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다. 이런 (나)의 입장은 낭비되는 행위를 분담 또는 생략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이러한 인위적인 과정은 성공을 거둔다. 이는 낭비를 최소화하여야만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근거]**

이지형/연세대 노어노문학과

## (2) 양자비교의 해결법

이러한 구조에 맞추어 제시문으로부터 정답을 가져오기 위해 익혀 두어야 할 해결법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 “동의어 치환” “예화 일반화”

#### A. 동의어 치환 : 주제어의 동의어를 주제어로 치환하기

제시문들은 모두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의 차이들로부터 쟁점, 즉 비교 기준이 등장한다. 결국 주제가 제시문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제시문이 이 주제에 대해서 무슨 판단을 내리는지를 알면 제시문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결론-근거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논술 제시문들은 제시문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사리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대부분 독해가 난해하고,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쉬운 글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때 단어 간 동의어 관계에 주목해 보자. 동의어 관계는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

##### 1) 그야말로 동의어를 말만 다르게 써 놓는 경우

이를테면, ‘간섭’ 이라는 말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동의어들은 모두 간섭과 같은 말이다.

(고려대 2012 수시 오전)

- 의도적인 개입
- 자유의 제한
-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일
-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지 않는 일

이를테면, ‘인과관계’ 라는 말을 해 놓을 때, 다음과 같은 동의어들은 모두 인과관계와 같은 말이다.

(연세대 2011 수시 사회계열)

- 원인과 결과
- 인과론적인 분석
- 모델로부터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가설
- 한 대상이 다른 대상을 산출하는 비밀스러운 힘

## 2) 서로 다른 것이 제시문 간 유기적 관계에 의해 같은 것이 되는 경우

이러한 원리를 논술 문제 전체로 확장하면 언뜻 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이 약간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동치 관계에 놓일 수 있다. 논술 제시문들은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제시문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의도적으로(강제로) 동치 관계에 놓은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풀리는 것이다. 즉, 동의어를 파악할 때 한 제시문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한 제시문과 다른 제시문을 넘나들며 파악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새로움’ 이 주제라면 (연세대 2012 수시 사회계열)

- 제시문 (가)에서는 ‘새로운 종교’ 로 새로움을 대표하여 이야기한다.
- 제시문 (나)에서는 ‘예술적 걸작’ 으로 새로움을 대표하여 이야기한다.
- 제시문 (다)에서는 ‘획기적인 발명’ 으로 새로움을 대표하여 이야기한다.

이들은 언뜻 보면 서로 달라 보이지만, 각 제시문 안에서 모두 주제어인 ‘새로움’ 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들은 모두 ‘기준에 없던 것’ 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제 동일화’ 는 비교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지만, 다음 단원에서 다룰 ‘대응’ 과 ‘논증’ 에서는 크리티컬 포인트(Critical Point)로 활용될 것이다.

### B. 예화 일반화 : 서로 다른 예화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포괄적인 하나의 메시지로 일반화하기

논술 제시문들로부터 메시지를 끌어내고자 할 때, ‘동의어 치환’ 의 기술로 쉽게 자신의 논지를 드러내는 제시문이 있는가 하면, 뜬금포로 예화가 등장하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제시문도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대에 자주 출제되는 양자 비교의 경우, 한 제시문은 논설문 형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며, 나머지 한 제시문은 문학작품이나 역사적 사례와 같은 예화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돌려 말하고, 그 예화들로부터 비유를 읽어낸 뒤 쉬웠던 논설문의 반대 논의로 전개하기를 원한다. 심지어, 연세대의 경우 제시문들이 **모두** 비유적 예화로 출제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단순히 동의어 치환만으로 제시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복되는 예화의 공통점을 찾아라!

이를테면, 어떤 제시문이 다음과 같은 예화들만 주구장창 반복하고 있다.

- 맹자가 말하였다. “내 노인을 섬겨서 남의 노인에게 미치고 내 아이를 사랑하여 남의 아이에게 이룬다면, 천하를 손바닥에 놓고 움직일 수가 있다. 시경에 이르기를 ‘처자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 이르고 그림으로써 집과 나라가 다스려진다.’라고 하였으니, 이 마음을 가져다가 저기에 보탬 뿐임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확장시키면 천하를 보존하기에 충분하고, 은혜를 확장시키지 못하면 처자도 보호할 수 없다.”

“서로 돕고 살자!”

- 오늘도 다 새었다 호미 메고 가자꾸나  
내 눈 다 매거든 네 눈 좀 매어 주마  
올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꾸나

“서로 돕고 살자!”

- 어와 저 조카야 밥 없이 어찌할까  
어와 저 아저씨야 옷 없이 어찌할까  
힘든 일 다 말하려무나 돌보고자 하노라

“서로 돕고 살자!”

-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서럽다 하겠거늘 짐조차 지실까

“서로 돕고 살자!”

- ‘내 것’과 ‘내 것이 아님’ 그리고 ‘다른 사람 것’과 ‘다른 사람 것이 아님’을 지나치게 구별하게 되면 공동체에서는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의 담지자로서 우리의 환경에 다가간다. 나는 어느 누군가의 딸 또는 아들이며, 또 다른 누군가의 삼촌 또는 사촌이다. 나는 또한 이 도시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러 저러한 집단의 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은 같은 공동체에 속한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어야 한다.

“서로 돕고 살자!”

예화들은 모두 서로 돕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주구장창 서로 돕고 사는 이야기들을 하며, 가끔은 “서로 도와야 천하가 편안하다” “서로 돕지 않으면 공동체에 불협화음이 나타난다” 따위의 메시지를 같이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이 제시문은 비록 서로 그 배경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똑같은 예화들을 통해, “**사회를 위해서는 서로 돕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제시문을 보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예화들만 주구장창 반복하고 있다.

프랭크 길브레스는 과학적 관리법에 흥미를 갖고 이를 벽돌쌓기에 적용해보기로 했다. 그는 벽돌공의 동작들에 대해 매우 재미있는 분석과 연구결과를 내놓았고, 벽돌공의 작업 속도와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 길브레스는 벽, 반죽통, 벽돌더미가 위치한 곳에서 양 발이 각각 디터야 할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고,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벽돌더미 쪽으로 한두 발짝 움직이는 동작을 없애도록 했다. 또 그는 반죽통과 벽돌의 가장 알맞은 높이를 연구한 다음, 비계\*를 고안해 그 위에 모든 재료들을 올려놓을 탁자를 둬으로써 벽돌공이 반죽통과 벽돌을 가장 알맞은 위치에 두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비계는 벽의 높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었는데, 비계를 조정하는 일만 전담하는 노동자를 두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벽돌공은 반죽을 퍼낼 때마다 벽돌을 들고 몸을 구부렸다 펴는 일을 줄이게 되었다.

“낭비적인 것을 줄였더니, 좋았다!”

- 그리고 벽돌공에게 벽돌을 전달하기 전에 한 노동자가 화차에서 벽돌을 내린 다음 고운 면이 위로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분류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한 비계 위의 반죽통 가까이에 쌓도록 했다. 이로써 벽돌공은 비계 위에 너저분하게 쌓여 있는 벽돌 더미에서 벽돌을 고르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으며, 가장 편한 자세로 가장 빠르게 벽돌을 질 수 있게 되었고 벽돌을 뒤집거나 양 끝을 돌리는 동작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시간의 낭비가 줄었다.

“낭비적인 것을 또 줄였더니, 더 좋았다!”

- 길브레스는 벽돌공들이 반죽 위에 벽돌을 놓고 접합부의 두께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 흙손의 손잡이 끝으로 벽돌을 몇 차례 두드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이후 그는 반죽의 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함으로써 벽돌을 누르는 손의 압력으로 접합부의 적당한 두께를 손쉽게 유지하는 법을 고안했다.

“낭비적인 것을 또 또 줄였더니, 더 더 좋았다!”

예화들은 모두 무언가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줄여서, 점점 좋아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이 제시문도 비록 서로 다른 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피로를 끼치는 낭비’를 점점 줄여서 이익을 보는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낭비를 없애 갈수록 진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최신의 실제 기출과 그 합격자 답안을 바탕으로, 이러한 두 기술을 실제로 적용시켜 보자.

### (3) 구조 및 해결법 활용 예시

#### 문제 발문

**제시문 (1)과 (2)의 관점을 비교하고, 둘 중 하나의 관점에 입각하여 제시문 (3)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고려대 2012학년도 수시 오선)**

#### 제시문 (1)

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이는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와 원리가 의도적 설계의 산물이라고 보는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자 위험천만한 발상으로서 20세기 문명을 전체주의로 빠져들게 한 주범이다. 전지전능한 사람이 존재해서 사회의 모든 구체적 사실과 상황, 결과 및 그 사이의 인과 관계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회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사회의 기본 질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개인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되어 온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관습이나 도덕은 모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반복적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사회가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이러한 자율적 성격에 힘입어서이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은 정부가 주입하는 사고와 제도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생각과 행동 방식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개인들은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마다의 지식을 활용에 자유롭게 행동을 결정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사회는 점차 진보해 간다. 이러한 사회 운영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에게 개인의 자유와 사적 영역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인은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과 권리가 있으며, 또한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 예외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영역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자율적 조정에 대비되는 것이 간섭, 즉 의도적 개입이다. 간섭은 명령권자가 의도한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대로 두었더라면 성취되지 않았을 방향이나 속도를 강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계에 기름을 치거나 태엽을 감는 것처럼 어떤 기계 장치가 적절히 기능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면서 이를 간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시계 바늘을 한 시간 뒤로 돌리는 것과 같이 통상적인 작동 원리와는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부분의 위치나 기능을 바꿔 놓았을 경우에만 간섭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간섭의 목적은 외부 개입 없이 본래의 원리에 따르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발생했을 결과와는 다른 특정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다. 간섭의 극단적 형태는 노예에 대한 주인의 지배 혹은 국민에 대한 독재자의 지배처럼 한쪽의 의지에 다른 한쪽을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간섭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장발과 짧은 치마 단속, 심야 통행금지, 과외 교습 금지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에도 정부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국민 생활의 다양한 부문에 개입하고 있다. 사회의 특정 부문에 간섭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는 자유의 원리와 공존할 수 없다. 의도적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목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함으로써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간섭으로는 바람직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 형성된 자생적 질서만이 보편적이고 일관된 원칙들의 체계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간섭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개인들 사이의 자율적 조정을 방해한다.

## 제시문 (2)

가.

“우리들이 하구픈 대로 내버려 두면 될걸 왜 하필 여기 끌어다 가둬 놓구 이리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야. 너희를 가둬 두다니? 부모 없는 너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이러는걸. 너희 하나하나가 한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말야.”

“가둔 게 아니면 가시철망은 뭇 하려 췌어요?”

“그건 밖에서 너희를 노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아경은요? 밤에 우리가 어쩔까 봐 그걸 지키는 게 아녜요?”

“그것 역시 밖에서 너희를 노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막자는 거다.”

“사실은 아경대가 있기 땀에 더 달아나구 싶은 생각두 들구, 뭇을 훔치구 싶은 생각두 들게 돼요.

어디 누가 견디나 보자 하구요.”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아경하는 애는 누구구 너희는 누구야. 이곳은 너희들의 집이야. 너 나 할것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하는 거야.”

중호는 계속해서 이 소년에게 무슨 말이고 한마디 해 줘야 할 걸 느끼며, “좀 전에 너는 너희들이 하구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달라구 했지? 그러나 세상에는 자기 하구 싶은 대로 해선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 가령 여기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에 가자구 수술을 했다고 하자. 아냐, 내가 이 팔을 찢리었을 때 일을 얘기하지. 마취약 기운이 없어지니까 수술한 자리가 어떻게나 쑤시구 아픈지 모르겠어. 나는 참다못해 의사더러 진통제든지, 아픈 걸 없애지게 하는 약 말아야, 그렇지 않으면 잠자는 수면제라도 달라구 졸랐지. 나두 의학을 공부한 일이 있어서 그런 약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쯤 모르는 바 아니지만 참다못해 그런 거야. 물론 의사는 내 말을 들어줄 리 없지. 내 편에서 보면 꼭 그 약을 썼으면 아픈 걸 잊겠는데 의사는 들어주지 않는단 말야. 그건 의사가 내 고통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 결국 날 위해서 그러는 게지. 만일 그런 약을 내가 달라는 대로 주면 그때그때의 내 고통은 잊어버리겠지만 그것 땀에 내 몸에 판 이상이 생겨두 그걸 깨달을 수 없게 되니 말야. 그리고 이젠 또 배 수술 할 때 애긴데 배 수술 환자에게는 어느 시간까지 음식물을 안 먹이게 돼 있어. 목이 타 죽을 지경이라두 물 한 방울을 주지 않아. 꼭 물 한 모금만 먹으면 살 것 같은데도 주지 않아. 어떤 사람은 견디다 못해 간호하려 와 있는 집안 식구를 졸라 대어 물을 먹구서 죽는 수도 있어.” 중호는 이 수술 환자의 예를 빌린 자기의 이야기 뜻이 얼마큼이나 눈앞의 소년에게 전해졌을까 의심스러웠다. 좀 더 알아듣기 쉬운 적절한 말이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것이었다. 중호는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야만 했다.

나.

현대 국가는 사회 전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곤 한다. 대표적 예로는 좌석 안전띠의 착용 강제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를 법규로 규제하여 왔는데, 일부 주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모든 승객들에게 안전띠의 착용을 강제하고 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안전띠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경우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택시나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전띠 착용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합격자 답안들을 보자.

[1]	비교기준	제시문 (B), (C)는 A의 <b>어떠한 점</b> 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인다.
[2]	비교기준에 대한 B의 결론과 근거	B는 (A에 대해) C와 반대의 결론이며 이는 X하기 때문이다. (B는 X하기 때문에 (A에 대해) B와 반대의 결론이다.)
[3]	비교기준에 대한 C의 결론과 근거	C는 (A에 대해) B와 반대의 결론이며 이는 Y하기 때문이다. (C는 Y하기 때문에 (A에 대해) B와 반대의 결론이다.)

제시문 (1),(2)는 사회를 발전으로 이끌기 위해 개인의 삶에 간섭하는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보인다. **[1 : 비교 기준]**

제시문 (1)은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만 사회가 발전한다고 말한다.

사회 질서와 진보는 개인들의 자발적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 유지되어 왔으며, 간섭은 이를 방해하며 전체주의와 같은 더 큰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비교기준에 대한 B의 결론과 근거]**

.반면, 제시문 (2)는 사회 발전을 위해 간섭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간섭이 개인의 사적 자유를 침해하는 듯 보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오히려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안전 보장,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형태로 사회의 이익도 증진시킨다. **[3: 비교기준에 대한 C의 결론과 근거]**

(최홍현 /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1)과 (2)는 사회 발전을 위한 정부 간섭의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갖는다. **[1 : 비교기준]**

(1)에서 간섭은 사회 발전을 위해 배제되어야 한다. 간섭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자생적 질서의 근간인 개인 간의 자율적 조정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2: 비교기준에 대한 B의 결론과 근거]**

반면 (2)는 후견주의적 간섭이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는 침해된다. 하지만 (2)는 (가)의 상황을 사례로 간섭이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며, (나)의 법률을 예시로 간섭이 이에 나아가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들을 이유로 간섭을 옹호하는 것이다.

**[3: 비교기준에 대한 C의 결론과 근거]**

(문운선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사회 진보의 원리로 제시문 (1)은 자율성을, 제시문 (2)는 간섭을 들고 있다. **[1 : 비교기준]**

간섭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할 때 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되어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제시문 (1)의 입장과 더 큰 사회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제시문 (2)의 두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2: 비교기준에 대한 B의 근거와 결론 + 3: 비교기준에 대한 C의 근거와 결론]**

(이상훈 /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그렇다면, 동의어 치환과 예화 일반화의 기술에 따라 합격자 답안을 제시문으로부터 도출해 보자.

## A. 동의어 치환

주제어의 동의어를 주제어로 치환하면, 제시문의 결론-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

### 제시문 (1)

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간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이는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와 원리가 의도적 설계의 산물이라고 보는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자 위험천만한 발상으로서 20세기 문명을 전체주의로 빠져들게 한 주범이다.

전지전능한 사람이 존재해서 사회의 모든 구체적 사실과 상황, 결과 및 그 사이의 인과 관계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회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사회 기본 질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간섭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개인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되어 온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관습이나 도덕은 모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반복적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나온 것인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사회가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이러한 자율적 성격에 힘입어서이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은 정부가 주입하는 사고와 제도(간섭)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생각과 행동 방식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개인들은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마다의 지식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행동을 결정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사회는 점차 진보해 간다. 이러한 사회 운영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에게 개인의 자유와 사적 영역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인은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과 권리가 있으며, 또한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간섭)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 예외적으로 정부의 개입(간섭)이 정당화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영역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자율적 조정에 대비되는 것이 간섭, 즉 의도적 개입이다. 간섭은 명령권자가 의도한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대로 두었더라면 성취되지 않았을 방향이나 속도를 강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계에 기름을 치거나 테엽을 감는 것처럼 어떤 기계 장치가 적절히 기능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면서 이를 간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시계 바늘을 한 시간 뒤로 돌리는 것과 같이 통상적인 작동 원리와는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부분의 위치나 기능을 바꿔 놓았을 경우에만 간섭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간섭의 목적은 외부 개입 없이 본래의 원리에 따르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발생했을 결과와는 다른 특정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다. 간섭의 극단적 형태는 노예에 대한 주인의 지배 혹은 국민에 대한 독재자의 지배처럼 한쪽의 의지에 다른 한쪽을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간섭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장발과 짧은 치마 단속, 심야 통행금지, 과외 교습 금지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에도 정부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국민 생활의 다양한 부문에 개입(간섭)하고 있다. 사회의 특정 부문에 간섭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는 자유의 원리와 공존할 수 없다. 의도적 개입(간섭)은 단기적으로는 목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함으로써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간섭으로는 바람직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 형성된 자생적 질서만이 보편적이고 일관된 원칙들의 체계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간섭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개인들 사이의 자율적 조정을 방해한다.

주제어는 간섭이다. 동의어 치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시문의 메시지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 간섭을 통해 좀 더 나은 사회를 건설 (사회 진보) 한다는 것은 오류이다. 오히려 간섭은 전체주의와 같은 극단적 부작용을 초래한다. 간섭을 통해 사회를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사회 질서의 원리가 되는 것은 간섭이 아니라 그 반대 개념인 자율성이며, 이것이 곧 사회 진보의 원리이다. 간섭은 이러한 자율성을 방해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이를 ‘결론-근거’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 다음의 합격자 답안들이다.

제시문 (1)은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만 사회가 발전한다고 말한다. [결론]  
사회 질서와 진보는 개인들의 자발적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 유지되어 왔으며, 간섭은 이를 방해하며 전체주의와 같은 더 큰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1) 에서 간섭은 사회 발전을 위해 배제되어야 한다. [결론]  
간섭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자생적 질서의 근간인 개인 간의 자율적 조정을 방해하기 때문이다.[근거]

동의어 치환은 제시문으로부터 ‘절대 구조’ 안에 들어갈 데이터를 채워넣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기술이다. 이 기술은 쉬운 제시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주 어려운 제시문까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번에는 제시문 (2)를 독해해 보며, ‘공통점 일반화’ 에 대해 알아보자. 제시문 (2)는 제시문 (1)보다는 난이도가 높다. 우선, 동의어 치환은 이미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간섭’ 의 동의어들을 간섭으로 모두 치환해 놓고 시작하자.

## B. 예화 일반화

주구장창 예화가 반복된다면, 그 예화의 공동점을 찾아서 일반화시켜라!

### 제시문 (2)

가.

“우리들이 하구픈 대로 내버려 두면 될걸 왜 하필 여기 끌어다 가둬 놓구 이려시는(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야. 너희를 가둬 두다니? 부모 없는 너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이려는걸. 너희 하나하나가 한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말야.”

“가둔 게 아니면 가시철망은 뭣 하려 췌어요(간섭은 왜 하셨어요?)?”

“그건 밖에서 너희를 노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아경은요? 밤에 우리가 어쩔까 봐 그걸 지키는 게 아녜요(간섭하시는 게 아녜요?)?”

“그것 역시 밖에서 너희를 노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막자는 거다.”

“사실은 아경대가 있기 땀에 더 달이냐구 싶은 생각두 들구, 뭣을 훔치냐구 싶은 생각두 들게 돼요. 어디 누가 겐디나 보지 하구요.”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아경하는 애는 누구구 너희는 누구야. 이곳은 너희들의 집이야. 너 나 할것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하는 거야.”

중호는 계속해서 이 소년에게 무슨 말이고 한마디 해 줘야 할 걸 느끼며, “좀 전에 너는 너희들이 하구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달라구(간섭하지 말라구) 했지? 그러나 세상에는 자기 하구 싶은 대로 해선 안 되는 일(간섭해야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 가령 여기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구 수술을 했다고 하자. 아니, 내가 이 팔을 찢았을 때 일을 얘기하지. 마취약 기운이 없어지니까 수술한 자리가 어떻게나 쑤시구 아픈지 모르겠어. 나는 참다못해 의사더러 진통제든지, 아픈 걸 없어지게 하는 약 말이야, 그렇잖으면 잠자는 수면제라도 달라구 졸랐지. 나두 의학을 공부한 일이 있어서 그런 약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쯤 모르는 바 아니지만 참다못해 그런 거야. 물론 의사는 내 말을 들어줄 리 없지(간섭하지.). 내 편에서 보면 꼭 그 약을 썼으면 아픈 걸 잊겠는데 의사는 들어주지 않는단 말야. 그건 의사가 내 고통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 결국 날 위해서 그러는 게지. 만일 그런 약을 내가 달라는 대로 주면(간섭을 안하면) 그때그때의 내 고통은 잊어버리겠지만 그것 땀에 내 몸에 땀 이상이 생겨두 그걸 깨달을 수 없게 되니 말야. 그러구 이젠 또 배 수술 할 때 애긴데 배 수술 환자에게는 어느 시간까지 음식물을 안 먹이게 돼 있어(간섭하게 돼 있어.). 목이 타 죽을 지경이라두 물 한 방울을 주지 않아(간섭해.). 꼭 물 한 모금만 먹으면 살 것 같은데두 주지 않아. 어떤 사람은 겐디다 못해 간호하러 와 있는 집안 식구를 졸라 대어 물을 먹구서 죽는 수도 있어.” 중호는 이 수술 환자의 예를 빌린 자기의 이야기 뜻이 얼마큼이나 눈앞의 소년에게 전해졌을까가 의심스러웠다. 좀 더 알아듣기 쉬운 적절한 말이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것이었다. 중호는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야만 했다.

나.

현대 국가는 사회 전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간섭)하곤 한다. 대표적 예로는 좌석 안전띠의 착용 강제(간섭)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안전띠를 하지 않은 운전자를 법규로 규제하여 왔는데, 일부 주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모든 승객들에게 안전띠의 착용을 강제(간섭)하고 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안전띠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경우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택시나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전띠 착용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간섭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동어의 치환은 이미 해 놓았으니, 이를 참고하여, ‘중호’와 ‘현대 국가’가 각각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두 예화의 공통점을 추려 보자.

제시문 (2)- [가]의 예화에서 ‘중호’는 소년들에게 간섭하고, 그 간섭의 이유를 의사와 환자로 비유하여 설명하며, ‘너희를 위해서 간섭하는 것이다’라는 근거를 드러내고 있다.

제시문 (2)- [나]의 예화에서 ‘국가(미국, 한국 등)’는 국민들에게 간섭하고, 그 간섭의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유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다는 근거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이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내용은 ‘간섭은 결국 피간섭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이며, 이 두 가지 예화를 사회 전체의 논의로 끌고 가며 다음의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간섭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이루어진다.”

이들을, ‘결론-근거’ 형식으로 정리한 합격자 답안들을 보자.

반면, 제시문 (2)는 사회 발전을 위해 간섭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결론]**

간섭이 개인의 사적 자유를 침해하는 듯 보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오히려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안전 보장,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근거]**

최홍현/고려대 통계학과

반면 (2)는 후견주의적 간섭이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본다. **[결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는 침해된다. 하지만 (2)는 (가)의 상황을 사례로 간섭이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며, (나)의 법률을 예시로 간섭이 이에 나아가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들을 이유로 간섭을 옹호하는 것이다. **[근거]**

문운선/고려대 경영대학

다음의 최우수 답안도 결국 비교기준과 각 입장의 결론 및 근거를 명확하고 깔끔하게 서술한 것이다.

사회 진보의 원리로 제시문 (1)은 자율성을, 제시문 (2)는 간섭을 들고 있다. **[1. 비교 기준]**

간섭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할 때 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되어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제시문 (1)의 입장과 **[2. B의 결론과 근거]**

더 큰 사회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제시문 (2)의 두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3. C의 결론과 근거]**

이상훈/고려대 통계학과(수석)